

기획연재 - 조계종 총무원장 어떤 자리?

한국 종교계의 '얼굴'

조계종에 선거바람이 불고 있다. 제32대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가 10월 31일로 공고되자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열기가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계 안팎에서는 도대체 조계종 총무원장은 어떤 자리인가? 라는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한국 대표종교의 대표종단 조계종. 조계종의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은 실질적인 상징적이지는 않지만 위상을 갖는 자리다. 네 차례에 걸쳐 조계종 총무원장은 어떤 자리인지 조명해 본다.

- 연재 순서**
1. 위상과 권한
 2. 어떻게 선출하나
 3. 인물로 본 총무원장
 4. 인물로 본 총무원장

최근 원력에 든 인공광 범장 대종사가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은 법장 스님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나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러자 미국 정부측은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조계종 총무원장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 왔다.

조계종 총무원장의 위상을 파악한 뒤 그에 걸맞은 대접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미 한국대사관은 "조계종 총무원장이 부처님대통령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오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결국 법장 스님은 미국 방문시 엘리엇 에이브람스 NSC(국가안보보좌관)의 선임보좌관과 디트리니 북핵 대사 등과 연속적으로 회동하면서 부시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조계종이라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의 행정수반이다. 일반 사회로 비쳐보면 '조계종 대통령'에 해당한다. 조계종 총무원장이 주요 종단들의 모임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당연직 회장을 맡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불교계를 대표할 뿐 아니라 종교계를 대표하기도 한다. 법장 스님이 한국종교를 대표하는 7개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인사·재산권 권 '조계종 대통령' '이판사판' 자질 두루 갖춰야

공통대표의장직을 맡았던 것 외에 기인한다. 조계종 총무원장이 청와대에 초청돼 가면 국무총리급 대우를 받으며 대통령 옆 좌석에 앉기도 한다.

이 같은 위상 때문에 장관 등 주요한 위치에 오르면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해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또 정치권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으면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해 법문을 듣기도 한다. 이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이 상징적인 비유를 섞어 이야기를 하면, 서로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위상이 높아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94년 종단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한 총무원장은 당시 문공부 주사를

만나기 위해 1시간 이상 기다리기도 했을 정도였다. 사회정치권에 대한 총무원장의 자자세에 대해 '호(護)정권불교'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94년 종단개혁 후 자주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종단 위상이 높아졌고 따라서 총무원장 권한 및 위상이 높아졌다.

70년대만 하더라도 권한은 종정에 집중돼 있었다. 62년 통합종단이 출범하면서 종정은 비구족, 총무원장은 대제족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60년대 말 비구족 종단 정체성을 확립하며 종정측에 힘이 쏠렸다. 종정은 인사와 재정에 관한 전권을 가진 반면 총무원장은 종정 보좌에 불과했다. 67년 종정 청담 스님과 총무원장 경산 스님이 대립도 이때문에 발생했다. 66년 통합종단 2대 종정으로 추대된 청담 스님은 종정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려 했고, 총무원장 경산 스님은 종정이 지나치게 실무를 장악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78년에도 종정측의 조계사와 총무원장 중심제로 종정을 개정하려는 종회측의 개운사 2곳의 총무원으로 분열하는 극도의 혼란

상을 3년간 지속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총무원장이 사회법상 종단의 대표성을 갖게 된다.

일반 사회의 헌법에 해당하는 종헌 제54조 1항에 따르면 '총무원장은 본종을 대표하고 총무원장을 통리한다.' 총무원장은 국회에 해당하는 중앙총회에 종헌 중법 개정안, 종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종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사회법상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종령을 발할 수도 있다. 총무원장은 중요한 종책을 심의 의결하는 총무원회의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총무원장은 총무원 임직원과 각 사찰 주지를 임명한다. 또 종단과 사찰에 속한 재산을 감독하며 처분 승인권을 갖는다. 총무원장은 당연직으로 조계사를 비롯한 직영사찰 주지, 중앙승가대 이사장,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등을 맡는다. 교육원장 포교원장도 총무원장 추천으로 중앙총회에서 선출된다.

이처럼 총무원장은 많은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94년 종단개혁으로 삼권분립 및 총무원장 주요 보직 금지 등을 이뤄냈지만 그 권한은 여전히 막강해, 각종 이해와 추문에 시달리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쟁의 한가운데 서기도 한다. 이로 인해 종단 대사회적 이미지가 흐려지기도 한다.

이 같은 폐단 때문에 총무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교구본사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구본사 또한 이미 몸집이 비대해져 더욱 강력한 중앙집권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의 이상형은 수행자로서의 위와 행정수반으로서의 역할 즉 '이판사판'의 자질을 두루 갖춘 덕망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행정정치라는 현실과 한국불교 대표종단의 수장이라는 '명함' 사이에서 가장 고독한 존재이기도 하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공정 청정 선거를"

출·재가 단체 감시기구 구성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출재가 모임이 공식적으로 구성된다.

"청정선거실현 승가운동본부"(창립준비위원장 김강, 이하 청정선거운동본부)는 9월 26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발기인 모임을 열고 10월 7일 창립총회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발기인 모임에서는 또 창립준비위 산하에 서명홍보사업팀, 교육정책사업팀, 선거감시단 구성준비팀, 사무회계팀을 두기로 했으며, 발기인 스님들은 공정한 활동을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참여불교재가연대를 비롯한 불교계 28개 단체들도 10월 5일 가칭 '청정선거문화정착 운동본부'(이하 청정선거문화운동본부)를 발족한다.

청정선거문화 운동본부는 앞으로 △청정선거 실현의 원칙 및 실천방안 제시 △청정선거 실천서약서 작성 △후보자 합동 정책토론회 개최 △부정선거 감시 및 신고장구 개설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총무원의 엄정 중립 촉구 및 감시 △선관위 재정지출 내역공개 △청정선거를 위한 문화행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조계종 임시중앙총회

11일 '동국대 이사추천' 논의

조계종 제168회 임시중앙총회가 10월 11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장재 스님을 비롯한 33명의 중앙총회의원 스님들은 9월 27일 중앙총회 사무처에 '동국대학원 이사 영배 스님 임기만료에 따른 총림학교관리위원회 복수 후보 추천 동의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문서를 접수했다.

남동우 기자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

'아제아제 바라아제 -사리불'

미산 스님 10월 5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종단 화합·발전 '새 회의장'에서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 마련된 조계종 중앙총회 본회의장이 첫 선을 보였다. 9월 26일 제167회 임시총회가 열린 본회의장(국회회의장) 천장에는 조계종을 상징하는 삼보륜이, 연단 중앙에는 부처님이 봉안돼 있다. 그 아래로 중앙총회의장과 부의장, 총무원장, 호계원장 자리가 마련됐으며, 법랍과 선수(選數) 순으로 81명의 중앙총회의원 좌석이 배치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각목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회주 성암 종범 스님 추대식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회주 성암 종범 스님 추대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 하오니 사부대중께서는 무루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은사 회주 추대 공동 위원장 원혜·정념 합장

■추대 위원
 경진 원천 수봉 원순 원진 원강 현수 정인 초우 묘근 보화 정주 성곡 일지 공운 수봉 성보 성관 정미 정민 원강 현수 일광 초우 정암 묘근 각원 정호 부광 활중 선용 해철 해각 승우 종호 금강 태범 각문 각우 덕관 묘현 지일 인성 상원 효성 성목 반공 성각 각원 묘정 현재 성일 원복 여준 도전 수영 범운 수현 도봉 보규 선민 혜능(5기~23기 일동)
 봉은사 절전 지원 선업 정일 성도 정안 명선 관철 명관 성인 정혜 정우 원일 지원
 봉은사 신도회 정창현 안승기 전봉수 나경호 유정삼 최재동 황남수 하용이 한기신 김성태 김금자 민병현 홍승자 김계숙 이옥성 조운주 박순옥 고미화 은혜선 이진화 임동희 양윤순 이명숙 신은수 강순애 김희동 안혜숙 김용욱 허승욱 권미옥 김계선 이현숙 박정숙 노우림 이미에 전경자 김복아 최은숙 이차숙 김성희 염용길 조성해 김동래 윤용화 정현주 서명숙 이명주 강우주 정영숙 오춘자 이해화 유덕숙 양명순 김복희 양정심 손영희 김덕자 김경화 손경자 박미자 강옥선 전영희 진영자 김매자 정삼미 김금당 정미림 윤용화 이순주 정정남 홍진숙 류오숙 박원순 김상민 김영애 김기옥 김양호 이효자 이정림 윤정순 윤금순 김 원 김철현 김전량 허동중 김효태 고준호 최현숙 홍성기 이도호 이원일 김기영 한규선 문병석 오왕근 박희재 봉은사 중무원 일동